

‘Chinese dream’ 시대 중국 지식인

이 옥 연

(서강대 중국문화과)

시진핑 시대와 ‘중국의 꿈’(中國夢)

- A. 중화 민족 부흥 실현의 중국의 꿈
- 몇 대에 걸친 중국인의 숙원을 응축한 것
- B. “반드시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”
“반드시 중국 정신을 드높여야 한다”
- C. “5000여 년 동안의 유구한 중화문명의 계승에서 나온 것”
“170여 년 동안의 중화민족 발전 역정의 심각한 결산 속에서 나온 것”
“깊은 역사적 연원과 폭넓은 현실 토대 지님”

중국의 꿈을 보는 시각들

- A. 서구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/없을 것인가?
- 중국의 꿈은 근대의 꿈. 서구 근대 추격, 복제의 꿈이다
- B. 민족주의, 패권주의, 제국 중국의 부활 : '중국몽은 제국몽이다'
- C. 경제대국, 정치대국, 군사대국 차원에서 본 중국의 꿈 시대
- 경제적, 정치적, 군사적 차원에서 세계에 미칠
- D. 부강의 부상인가? 문명의 부상인가?(許紀霖)
- E. 중국의 부상은 세계가 다양한 근대의 경쟁 시대로 진입하는 상징(Martin Jacques)

개혁개방 이후 30년 중국 지식인의 정체성

- A. 80년대 : 계몽주의, 중국=봉건/서구=현대
 - B. 90년대 : 포스트 계몽주의 : 계몽의 연장, 계승/계몽에 대한 비판, 분화
- 자유주의, 신좌파, 포스트(후학) 조류
 - C. 2000년대 : 중국성(Chineseness) 재발견, 재구성 시대, 전통주의 부상
- '重思中國', '重構中國'
- 중국적인 것, 중국의 가치, 중국 역사 경험의 재발견
- * 반전통 서구 근대 추구 - 서구 근대에 대한 질문/중국 근대성 발견 - 중국 재발견
중심 이동 : 서구 - 서구 근대에 대한 비판 - 중국 전통과 역사의 재발견

중국의 꿈 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의 지형학

- A. 중국의 미래, 중국의 길에 대한 활발한 사고, 문명론적 사고의 증가
 - '中國何處去'
 - 가장 사상적으로 활력 있는 시기
 - 가장 사상적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된 시기
- B. 신좌파와 '전통주의', 문화 보수주의의 부상
- C. 자유주의의 쇠퇴와 '國情派'의 부상
- D. 신유학파의 부상
 - 유가 정치의 재발견 : 문화유가에서 정치유가로(蔣慶 등)
 - 지식담론에서 문화현상으로
 - 지식담론에서 국가정책으로

중국의 꿈 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의 쟁점 : 국가주의

- A. 국가주의의 대두 : 지식인 사회의 화두가 '개인 - 계급 - 국가'로 변했다(王曉明)
- B. 중국 지식인은 국가주의자로 타락하였는가?
 - 錢理群의 汪暉 비판
- C. 국가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?
 - 중국 지식인의 취약점
 - 독립적인 비판적 그룹으로서 지식인 없다
 - 중국에서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려는 엘리트집단이 국가와 직접 경쟁을 벌인 적이 없다
 - 유럽과 차이: Martin Jaques)
 - 중국 근대성 차원 : 郭沫若, 丁玲 등의 사례
 - 반자본주의 + 현대화

중국의 꿈 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의 쟁점 : '중국' 재발견

- A. '중국' 재발견
 - 중국적인 것, 중국적 가치, 중국 역사 경험의 재발견
 - '중국성' '중화성'(Chineseness)의 재발견
- B. 양상
 - 중국 모더니티 (Chinese modernity)의 재발견
 - 중국 전통 가치의 재발견
 - 중국 전통 제도의 재발견
 - 중국 사회주의 경험과 역사의 재발견
- C. '중국' 재발견을 어떻게 볼 것인가?
 - 민족주의, 국가주의 흐름의 일환
 - 중화주의의 부활
 -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당화 이데올로기
 - 대안적 근대 추구의 일환
 - '문명 국가'의 전통이 어떻게 중국의 미래에 작용할 것인가?

중국의 꿈 시대 중국 지식인 사회에 대한 한국의 대응

- A. 새로운 중국 : '전통 중국' '사회주의 중국'도 아닌 G2대국으로서 중국이 중국학의 대상으로 부각됨
- B. 중국의 부상 이후 : 한국판 중국 위협론의 부상
 - 패권주의 부각
 - 진보판 중국위협론의 부상
- C. G2중국 시대 한국 중국학계의 '비판적 중국학'의 과제
 - 중국을 보는 한국의 시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?
 - 어떻게 한국과 중국에 이중으로 개입할 것인가?
 - 중국의 어떤 부분을 문제화 할 것인가? 패권주의, 민주 문제, 대안적 근대 모색 등
- D. 중국의 폐쇄적 민족주의, 패권주의와 대한 경계와 더불어 대안적 근대에 대한 모색도 지켜볼 필요.

Q&A